



쑥부쟁이 / *Aster yomena* (Kitam.) Honda

| 구분 | 설명 |
|------|---|
| 생물분류 | 식물 |
| 속국명 | 참취속 |
| 과국명 | 국화과 |
| 과명 | Compositae |
| 일반특징 | <p>요약설명 :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한국(남부)에 나며 일본에 분포한다. 분포지역 : 한국(남부)에 나며 일본에 분포한다. 형태 : 여러해살이풀이다. 크기 : 높이 30~100cm이다. 꽃색 : 노란색 개화기 : 8월,7월,10월,9월 잎은 달걀형 긴타원모양이다. 끝은 뾰족하며 밑은 좁아져 잎자루처럼 된다. 표면은 녹색이고 윤이 나며 거친 톱니가 있다. 위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진다. 꽃은 7~10월에 연한 자색, 노란색으로 핀다. 머리모양꽃차례는 가지와 줄기 끝에 1개씩 달린다. 총포는 녹색이고 공을 반으로 자른 모양이다. 열매는 수과로 달걀모양이고 10~11월에 익는다. 뿌리줄기는 옆으로 길게 뻗는다. 원줄기가 처음 나올 때는 붉은빛이 강하며 점차 녹색 바탕에 자줏빛을 띤다. 숙부쟁이류는 양지바르고 물빠짐이 잘되는 언덕 또는 척박지에서 잘 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. 해가 잘 들고 수분이 있는 땅이 좋다. 대체로 가뭄에는 강한 편이다. 별이 드는 쪽이면 건조한 곳이나 습기가 있는 곳이나 가리지 않는다. 봄에 싹이 돌아날 때 자주색을 띠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'자채()'라고도 한다. 뿌리 주위까지 자색을 띠고 있어 이 부위가 특이 더 맛이 있으므로 뿌리채 채취하여 이용하는 향기롭고 맛있는 봄나물이다.</p> |